

2016 WINTER Vol. 32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News

박물관 풍경

風景



인천광역시립박물관
Incheon Metropolitan City Museum

아버지와 목욕탕

글 • 배성수(전시교육부)

어릴 적 목욕탕은 참 가기 싫은 곳 중 하나였습니다. 일요일 저녁이면 아버지를 따라 동네 목욕탕에 가곤 했는데, 하필 TV에서 즐겨보았던 <왓가닥 루시>와 <웃으면 복이와요>를 방영하는 시간과 겹쳤기 때문입니다. 목욕탕에 가면 아버지는 오래 뜨거운 탕 안에 우리 형제를 가두셨습니다. 때를 불려야 한다는 이유에서였지요. 뜨겁다 못해 발끝마저 쓰러렸던 온탕은 두려움 그 자체였습니다. 힘든 시간을 버티고 탕에서 나오면 아버지는 우리 형제를 바닥에 누이고는 직접 때를 밀어주셨습니다. 어찌나 세계 미쳤는지 살갓이 벌겋게 달아오를 정도였습니다.

한편으로 목욕탕 가는 일요일 저녁이 기다려지기도 했습니다. 아버지는 우리의 때를 밀어주시고는 뜨거운 한증막-지금의 사우나-에 들어가시거나 당신의 때를 밀곤 하셨는데, 그 삼십분 남짓의 시간이 우리 형제에게 주어진 물놀이 시간이었습니다. 냉탕에서 헤엄을 치기도 하고, 가져간 장난감으로 뱃놀이를 하기도 했습니다. 목욕을 마치고 탈의실로 나오면 아버지는 꼭 사이다 두 병을 사셨습니다. 한 병은 당신이 드시고, 남은 한 병을 동생과 나누어 마시게 했습니다. 병에 그려진 별표 중간이 딱 절반인 것으로 동생과 합의했지만, 그 합의가 지켜진 적은 거의 없었던 듯합니다. 나중에 커서 목욕탕에 가면 꼭 사이다 한 병을 혼자서 마셔야겠다고 다짐했던 시절이었습니다.

CONTENTS 2016 WINTER Vol. 32

- 02 창으로 보는 풍경**
아버지와 목욕탕
- 04 기획기사 I**
월미도(月尾島)의 조탕(潮湯)
- 07 청소년 기획**
복합 휴양 공간 목욕탕
- 08 기획기사 II**
근대기 인천의 공중목욕탕 건축
- 10 시간을 달리는 공간 ⑩**
“물기는 말리고 기름은 태워야 한다.”
- 12 기획기사 III**
인천과 부산 목욕탕 굴뚝
- 14 인터뷰**
동네 목욕탕지기
- 15 아미카툰**
월미도 조탕 엽서
- 16 비지정 문화재의 흔적을 찾아서 ③**
인천의 문화지도 청학동 외국인 묘지
- 이국의 땅에서 죽음을 맞다
- 18 박물관 소식**
전시 / 교육 / 행사
- 20 유물 소개**
월미도 조탕 사진엽서

COVER STORY

목욕, 이발, 짜장면으로 바꿨던 명절 전날.



일제강점기 이후 우리의 목욕 문화는 큰 변화를 맞이 하였다. 광복 이후 늘어난 사설 목욕탕은 1970년대 아파트 샤워 문화와 1980년대 온천, 목욕탕이 발달되면서 오늘날의 휴식 기능(찜질방, 사우나)을 겸한 시설로 바뀌었고, 그 변화는 동네마다 우뚝 솟아있던 굴뚝을 서서히 사라지게 하였다. 송림동 목욕탕 굴뚝의 산타할아버지 조형물 속에서 어릴 적 목욕이 끝나면 상고머리 이발과 짜장면을 먹었던 명절 목욕을 떠오르게 한다.

그 시절 목욕탕의 이름은 거의가 ‘○○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욕탕의 이름은 동네 사람들에게 공유되어 ‘○○탕 옆길’, ‘○○탕 뒷집’ 등 동네 이정표가 되기도 합니다. 언젠가부터 조금 더 최신의 시설을 갖춘 목욕탕을 ‘대중 사우나’라고 부르더니, 이젠 목욕과 식사, 휴식을 논스톱으로 해결하는 ‘찜질방’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시설 좋은 사우나나 찜질방에 가 보아도 예전 아버지를 따라 갔던 그 목욕탕만은 못한 것 같습니다. 어릴 적 다짐대로 혼자 사이다 한 병을 모두 마셨는데도 여전히 갈증이 나는 건 왜일까요?



창간일 2009년 3월 1일 **발행인** 조우성 **발행일** 2016년 12월 20일
기획·편집 전시교육부 이성용, 안성희
자원봉사자 구자인혜, 김명순, 문경숙, 엄경미, 정경수, 최정미
표지·글 조오다 **제호** 이태웅 **디자인·인쇄** 은정문화사

인천광역시 연수구 청량로 160번길 26 | TEL. 032-440-6750 FAX. 032-440-8871
<http://museum.incheon.go.kr> | www.facebook.com/icmuseum

월미도(月尾島)의 조탕(潮湯)

글 • 김양수(전 인천시 문화재위원, 현 인천시민 원로회의 위원)

필자가 할머니, 어머니들의 손길에 이끌려 월미도 조탕에 목욕을 하러 다니던 1930년대 중후반은 이미 조탕이나 해수 풀장이 월미도에 조성된 지 20여 년의 세월이 흐른 뒤의 일이다. 이미 지금으로부터 80여 년 전의 일로 사진으로만 확인할 수 있는 아련한 추억으로 남아 있을 뿐이다.

따듯하면서도 비릿하고 달콤 짭조름한 모성을 떠올리게 하는 월미도 조탕은 30년대 말 점점 팍팍해지기 시작하는 기억과도 겹쳐진다.

월미도 조탕이 우리네 삶의 그리운 추억의 대상이라 할지라도 그 시절은 일본 제국주의에 의해 나라를 강점당한 시기였다. 그리고 월미도를 관광지로 지정하고 유원지를 조성한 것도 나라를 빼앗은 일제가 꾸민 짓이었기에, 지금 돌이켜 생각하면 얇은 상술에 넘어가 꼭두각시 노릇을 한 것 같은 자괴감마저 고개를 든다. 한편으로는 할머니, 어머니들과의 아련한 그리운 추억을, 다른 면으로는 조금 과장해서 씩씩한 참회와도 같은 마음 상태를 품어 안고 회상담을 풀어놓고자 한다.

그 무렵의 월미도

구한말에 인천항의 현관이었던 월미도는 그야말로 고달픈 나날을 보내야 했다. 역사 기록을 살펴보면, 조선 중엽인 숙종 시절(1708) 월미도는 이미 군사상으로 중요시되어 포대(砲臺)를 설치한 바 있었고, 구한말 고종 때에도 같은 작업이 벌어졌다는 기록이 남아 있다.

월미도는 본래 풀밭이 대부분이었고 그 가운데 나뭇이 몇 그루 서 있는 민동산과 다름없는 외로운 섬으로서, 곁에 그보다 더 작은 섬 '소월미도'를 끼고 있을 뿐이었다. 1834년 김정호의 「청구도」에는 '월성(月星)'이라 기록되었고, 프랑스 함대사령관 '로제'는 자기 이름을 딴 '로제섬'이라는 지명을 외국 기록물에 올리기도 했다. 어쨌든 1883년 개항과 함께 열강들의 각축 속에서 개화 문물을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많이 받아들인 섬이 되기도 했다. 고종 4년(1887) 12월 12일 일본과 월미도 기지 조차 계약을 체결했으며, 1896년 8월 18일에는 러시아 공사가 월미도 남단 광장 넓은 터전을 두고 조차 계약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1897년 12월 말에는 미국의 스탠다드 석유회사가 월미도에 석유탱크를 건립하는 등 구한말의 열강들은 서로 월미도를 차지하려고 붐벼댔다. 광무 1년(1902)에는 전술한 대로 구한국 정부가 포대를 준공했다가 4년 뒤인 1906년 폐지하기도 했다.

19세기 말 일본군이 월미도에 석탄 창고와 급수소를 설치하자, 러시아도 즉시 뒤따라 그곳에 석탄 창고를 세우기도 했는데, 1904년에 월미도는 완전히 일본 해군기지로 완성됐다.

일본과 러시아 사이의 풍운이 급박해져 간 1902년 월미도 산 정상에 무선 시설이 설치됐다. 그 즈음 요시카와(吉川)라는 일본인 무역상은 정부로부터 월미도 개척권을 인허받은 송(宋) 모 씨로부터 그 권리를 매수하여 1904년 일본군의 군용지로 쓸 수 있게 하고, 월미도를 일주하는 도로도 구축해 놓았다. 그 1년 전인 1903년에 이미 소월미도와 팔미도에는 등대가 설치되기도 했으며, 소월미도에 있는 간이 측후소에서 통신용 비둘기를 키우기도 했다.



월미도 조탕 내부

1904년 러일전쟁 발발 직전 일본이 러시아와 국교를 단절하고 이듬해 1905년, 일본 군부는 일본 임시철도감부로 하여금 군사상 목적으로 월미도 목교(木橋)를 준설했다. 이때 일본군 사령관이 소월미도를 군용품 생산장으로 선정하고 인천역에서 소월미도까지 철도를 설치했으며, 목교에는 기차 노선과 인도까지 만들었다. 그런데 전황이 복잡하자, 목교 때문에 선박 운행이 불편해질 것을 감안하여 목교를 폐지시켰다.

1910년 일제는 조선을 강탈하고 그 이듬해인 1911년 3월 월미도 해항검역소를 설치하였는데, 그때 육지와 월미도 사이에 본격적인 독길이 설치되어 이후 월미도는 섬 아닌 섬으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그 무렵 월미산에 식수해 놓은 빗나무들이 무성하게 온 산을 수놓게 되자, 바다를 눈앞에 두는 수려한 풍치지구로 지정하고, 자연 관광지로 뛰어난 조건을 감안해서 유원지 시설을 용인하게 되었다. 1918년에 관광지로 정식 지정됐다.

거기에 조탕을 비롯하여 해수 풀장과 호텔뿐 아니라, 물 위에 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만든 요정인 '용궁각'을 세워놓음으로써 완벽한 유원지 구실을 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조탕은 바닷물을 퍼 올려 뜨겁게 데운 열탕 목욕탕이라서 서울을 비롯한 전국의 관광객들이 몰려들 정도로 인기가 대단했다. 바닷물을 이용해서 목욕물을 데운

목욕탕이 흔히 볼 수 있는 것이 아닌 데다, 인천 바닷물의 염분은 어느 고장의 바닷물보다도 미네랄과 필수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인체에 미치는 약효가 컸다고 한다. 때문에 월미도 조탕을 찾는 관광객은 단순한 볼거리 중심의 관광 손님이라기보다 몸에 신경통이 심하거나 피부병이 있어 가려움증으로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그런 열탕이 전국에서 인천에만 존재했기에 주목을 받았는데, 가령 원산의 송도원 해수욕장이나 부산의 해운대도 그저 평범한 해수욕장이었을 뿐, 월미도와 같은 조탕은 찾아볼 수 없었던 것이다.

조탕(潮湯)의 아픈 기억

인류가 처음 더운 물로 목욕을 하게 된 것은 고대 크레타 인들이 우연히 물을 덥혀 몸을 씻은 데서부터 유래했다고 한다. 처음 설치한 목욕탕은 이집트 미노스 왕이 지중해의 크레타 섬에 있는 코노소스 궁전에 설치한 것이었고, 찬물이 아닌 따뜻한 온수를 사용한 것은 기원전 315년 부터였다고 한다. 또 공중목욕탕을 처음 만든 사람은 기원전 344년 경 스파르타 인들이었고, 이것이 로마의 목욕 문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바닷물을 퍼 올려 데우는 조탕의 예는 일본과 한국에만 있는 듯하다. 일본에서는 추운 겨울 바다에서 오랜 시간 조업하고 돌아온 어부들이 항구 가까이에서 금방 몸을 따뜻하게 녹이기 위해

고안한 것이 조탕이었다는 설이 있다. 일본어로는 '시오유'라 발음하는데, 조탕 혹은 염탕(鹽湯)이라 표기하고 아직도 몇 군데 바닷가 관광지에 남아 있다.

인천은 개항 후 일본인촌을 시발로 목욕탕이 시작되었다고 한다. 필자도 어린 시절, 어른들을 따라서 일본인 동네의 목욕탕에 드나든 일이 있었고, 한국인들만 가는 목욕탕도 몇 군데 가 보았지만, 월미도 조탕처럼 그렇게 큰 목욕탕은 보지 못했다. 다만, 워낙 어린 시절이라 할머니, 고모, 어머니들에게 이끌려 고추 달린 주체에 여탕에 간 것이다. 동네에 있는 목욕탕은 규모가 작아서 그랬는지 별로 기억에 없는데, 월미도 조탕의 경우는 같은 무렵이었는데도 생생하게 기억나는 것이 많다. 아마도 시내에 있는 동네 목욕탕보다 규모가 엄청나게 컸고, 목욕하는 사람들도 많았기 때문인 것 같다.

더군다나 그곳에서 잊으려야 잊을 수 없는 아픈 일을 당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다. 그곳 욕조는 돌레를 등걸게 두른 매우 커다란 것이었다고 기억된다. 물은 어린 필자에게는 지나치게 뜨거운 편이라서 욕조에 들어갔다가는 금방 나와 버렸고, 그때마다 심심풀이로 바닥에 놓인 나무로 된 물통을 굴리고 놓고 있었다. 그런데 언뜻 옆 자리에 있던 또래 여자 아이가 물통에 물을 담아 들고 노는 것을 보고 필자도 덩달아 물통에



월미도 해수욕장

넘쳐도록 물을 담아가지고 할머니 앞으로 다가가다가 욕조에서 욕실 바닥으로 흥건히 넘쳐흐른 물을 밟고는 갑자기 뒤로 벌렁 나가자빠졌다. 그리고는 그대로 뒤통수를 욕실 바닥에 부딪혔던 것이다. 쿵 하고 벼락치는 듯한 소리와 외마디 비명 소리, 울음소리에 목욕하던 할머니, 고모, 어머니들은 목욕통을 내동댕이치고 어린 필자를 들쳐 안고 시립병원으로 달려갔다.

다행히 뇌진탕까지는 안 갔지만, 뒤통수에 커다랗게 혹이 났고 반년 남짓 진료를 다니고서 혹은 사라졌으나 그 대신 얼굴 앞쪽에 위치한 두 눈이 왕방울만큼 커져서 같은 동네 아이들로부터 ‘눈 큰 아이’ 또는 ‘눈딱부리’라고 놀림을 받곤 했다. 당시 우리집 건너편에 사는 초등학교 1년 선배가 있었는데, 하루는 그 사람이 우리 교실 창문 앞에서 자기 동료들을 불러 모아놓고 내쪽을 손가락질하며 뭔가를 수군거리는 것을 보았다. 나이 들어 그와 대화를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왜 나를 손가락질 하며 친구들과 이야기를 했느냐고 물었더니 그가 말하길, 이 세상에서 저렇듯 왕방울 눈을 가진 놈을 본 일이 있느냐고 의견을 나눴다는 것이다.

그러나 눈만 아니고 필자는 또 조탕에서 상처를 입었다. 눈이 그렇게 커진 이후로 몇 해 뒤 박문유치원에 다닐 무렵이었는데, 역시 할머니들을 따라 조탕에 가서 놀다가 손을 씻으려고 손바닥을 수도꼭지 앞에 내밀고 물을 트는 순간 찬물이 아닌 뜨거운 물이 쏟아져 나와 손가락 하나를 데었던 것이다. 욕탕 직원이 간단한 소독과 함께 연고를 발라주어 그런대로 잠깐 쓰라린 통증을 견뎌야 했지만, 내 어린 시절의 조탕은 그래서 아픈 추억으로만 뇌리에 박혀질 수밖에 없었다. 뎀 손가락은 며칠 만에 가라앉았지만, ‘눈 큰 아이’의 두 눈은 40세 장년 무렵부터 조금씩 작아지더니 50세를 넘어선 흔적도 없어졌고, 80대인 지금은 그냥 노인일 뿐이다.

복합 휴양 공간 목욕탕

글 • 박동우(안남고등학교, 4기 청소년기자)

멘토 • 주은정(중부대)

여러분은 일상에 지치고 힘들 때, 쌓인 피로를 풀러 어디로 가시나요? 요즘 같이 추운 날씨에 많은 사람들이 피로를 풀기 위해 찾는 곳이 '사우나' 혹은 '목욕탕'일 것이다. 옛날 목욕탕은 몸을 씻기 위해 뜨거운 탕에 들어가는, 말 그대로 몸을 씻는 곳으로만 인식되었다. 하지만 최근 목욕탕이라 하면 찜질방, 스파 등 다양한 종류의 실과 탕은 물론, 각종 편의 시설을 두루 갖춘 휴양 시설로 바뀌었다.

숲의 스파

옛날 목욕탕은 오늘날의 스파, 찜질방과 다르게 다양한 공간이 조성되어 있지 않고 시설도 많이 낙후되었지만 그럼에도 목욕탕만을 고집하는 분들이 많다. 바로 동네에 사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대부분이다. 아마도 어린 시절 추억과 따뜻한 정겨움을 느낄 수 있는 곳이기에 잊지 않고 발걸음해 주시는 것 같다. 이렇듯 추억이 머물러 있는 옛날 목욕탕은 아직도 곳곳에 그 세월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다. 특히 오래된 벽돌로 이루어진 높은 목욕탕 굴뚝이 단연 돋보이는데, 이 같은 목욕탕 굴뚝은 그 옛날 낮은 집들 사이 높이 솟은 동네의 길잡이 역할을 해 주었다고 한다. 요즘은 옛날처럼 목욕탕 굴뚝에서 하얀 수증기가 나오는 모습을 보기 힘들지만,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남아 있어 우리의 향수를 자극한다.



목욕탕 굴뚝

최근 목욕탕은 커다란 건물 전체가 목욕탕이기도 하고, 그 안에 식당이나 안마, 운동, 오락, 수면 시설 등 각종 편의 시설을 갖춘 곳들이 많다. 이용객들에게는 마치 휴양지에 온 듯한 기분이 들도록 최대한의 즐길 거리와 편의를 제공하기도 하고, 특히 찜질방은 대중목욕탕이 쇠퇴하였을 때 목욕탕의 고급화·대중화를 이끌어 내며, 한때 '찜질방 문화'가 생겨날 정도로 활성화 되었다. 대상의 제한 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친구와 부모님, 연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자리 잡았다. 드라마에서도 일명 '양머리'를 하며 찜질방을 즐기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게

되었고, 이러한 모습이 한류 드라마를 통해 전파되면서 외국인에게는 관광 코스가 되기도 했다. 목욕탕은 단순한 목욕 시설에서 나아가 건강과 여가 생활을 함께 즐길 수 있는 장소로 변화하였고,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 있다.

옛날 목욕탕이든 최신 목욕탕이든, 목욕탕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일상에서 쌓인 피로를 풀고, 재충전할 수 있는 따뜻한 공간이기 때문이 아닐까? 요즘같이 추운 겨울, 동네 목욕탕에서 따뜻한 온기를 나누며 함께 겨울을 난다면 좋을 것 같다.



근대기 인천의 공중 목욕탕 건축

글 · 손장원(인천재능대학교 실내건축과 부교수)

벽돌로 쌓아 올린 공중목욕탕의 높은 굴뚝은 동네의 랜드마크였다. 굴뚝에 쓰여진 커다란 글자는 목욕할 때가 되었다는 무언의 압력으로 다가오기도 했다. 그런데 막상 목욕탕 앞에서면 굴뚝은 보이지 않고 남녀로 구분된 출입구가 딱하니 버티고 있었다. 목욕탕 정면에서 굴뚝이 보이지 않은 것은 목욕물을 데우는 보일러실이 건물 뒤편에 배치되었기 때문이다. 출입구를 지나 입욕료를 받는 곳에서 요금을 지불하고 입욕권을 받았다. 입욕권을 들고 안으로 들어가 신발을 벗어 들고 빈 옷장을 찾아 아래 칸에는 신발을 넣고, 위 칸에는 옷을 넣었다. 탈의실 앞에는 욕장과 연결된 홀이 한쪽 구석에는 화장실이 있었다. 약간의 차이는 있어도 크게 다르지 않은 공중목욕탕의 이러한 배치 형식의 기원은 일본의 근대기 ‘센토(銭湯)’를 근간으로 한다. 즉, 개항장에 정착한 일본인들은 공중목욕탕을 세웠고, 이것이 우리나라 동네 목욕탕의 출발이다.

인천에 일본식 목욕탕이 세워진 시기는 정확하지 않으나, 여러 곳에 목욕탕이 들어섰다. 현재 중구청 별관으로 쓰이는 인진빌딩(신포로23번길 80-1)자리에 있던 목욕탕이 대표적이었다. 1892년 당시 목욕료는 2전으로, 짐꾼 일당이 23전 정도였으니, 그리 비싼 가격은 아니었던 듯하다.

목욕이 일상화되어있던 일본인들은 공중목욕탕에서의 목욕이 자연스러웠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옷을 벗고 다른 사람들과 어울려 몸을 씻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컸다. 이 때문에 1905년 서울 서린동에 문을 연 한국 최초의 대중목욕탕은 개업 후 곧바로 문을 닫았다 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대중목욕탕을 자연스럽게 드나들게 된 것은 1920년대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 1923년 경동에 세워진 목욕탕보다 앞선 인천 최초의 공중목욕탕도 아마 1920년대에 접어들어 세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여

기서 짐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다. 한국인 전용 최초의 공중목욕탕으로 1924년 평양에 세워진 목욕탕을 꼽는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과 다른 주장이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인천과 서울에 이보다 앞서 세워진 목욕탕이 있었다.



개항기 일본식 목욕탕(굴뚝에 ‘湯’이라는 글자가 있다)

1923년 11월 12일자 동아일보에서 다음과 같은 기사가 등장한다.

인천에 조선인 목욕탕

근 2만의 조선인이 사는 인천에 아직 조선인 목욕탕이 한 곳밖에 없었다. 외리 188번지 李○榮씨 만 원 자본금으로 목욕탕을 건설하여 일본인의 그것에 지지 않는다. 지난 10일부터 개업하였다.

이 목욕탕의 이름은 서탕(曙湯)으로 지금의 경동목욕탕 근처에 위치하고 있었다. 이로써 인천에는 우리나라 사람만 사용하는 목욕탕이 두 개가 되었지만, 충분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31년 12월 노구씨(野口文一)가 한국인 전용 목욕탕 건립을 위해 1만 원을 인천부에 기부했다. 인천부는 이 돈으로 1932년 11월 공사에 착수하여 12월 28일에 완공했다. 공사비는 문헌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다. 중앙일보는 7,900원으로, 인천부사는 8,000원으로 기록하고 있다. 인천부사에 기록된 공사내역에 따르면 건축비, 설비비 등 건축 공사비로 6,133원을 썼고, 부지 매수비(1,431원)와 지장물 보상비로 총 1,867원을 지출했다.

1933년 1월 19일에 거행된 준공식에는 기부금을 낸 노구찌의 유족이 초대되기도 했다. 박영섭 씨가 운영 도급을 맡아 19일, 20일 무료개방을 거쳐, 21일부터 대인 2전, 소인 1전의 요금으로 정식 개장했다. 위치는 신화수리 285,286번지(당시 지번이며, 현재 동구 화수동)였다. 신문 기사에 따르면 공설 욕장은 이후 여러 차례 요금이 인상되어 1934년(대인 4전, 소인 3전)이었던 것이 이로부터 6년 뒤인 1940년에는 대인 요금이 8전으로 올랐다.

근대 개항기에 이어 일제강점기 인천에 세워진 목욕탕의 건축 형태를 명확하게 확인할 만한 자료를 찾지 못한 상태라, 인천부사에 수록된 내용을 소개한다.

인천부사는 화수동에 세워진 공설 욕장을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고 있다. 1,824.8㎡(552평) 규모의 대지 안에 본관과 부속 건물을 배치하고 대지 주변에는 철조망 울타리를 둘렀다. 목욕탕에서 나오는 많은 양의 물이 쉽게 빠져나가도록 배수구도 만들었다. 1층 규모의 본관은 벽돌을 쌓아올려 벽체를 만들고, 그 위에 지붕틀을 올린 다음 금속판 기왓가락이음

으로 지붕을 덮었다.

건물 정면에 위치한 접수실은 반원형으로 돌출시키고, 접수실 좌우에는 2개의 문을 두어 남녀가 따로 출입할 수 있도록 했다. 다소 밋밋한 형태에 변화를 주기 위해 접수실과 출입구 상부에는 캐노피를 설치했다. 이 캐노피는 출입구와 접수실로 쏟아지는 직사광선을 차단하는 동시에 눈비를 가려 출입의 편의성을 높도록 한 것이며, 그 위 박공벽에는 '공설욕장(公設浴場)'이라는 간판을 달았다.

수증기가 많이 발생하는 목욕탕은 일반 건물보다 높게 천장을 설치한다. 사진으로 볼 때 공설 욕장도 이러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보이며, 지붕 위에는 배기구 2개를 설치해 남녀 욕조에서 발생하는 수증기가 쉽게 배출될 수 있도록 했다.

공설 욕장은 전체 면적 165.3㎡(50평)로 본관(148.8㎡; 45평), 부속건물(16.55㎡; 5평)으로 그리 크지 않은 규모로 지어졌다. 평면은 접수실(1평), 현관(2평), 화장실(1.5평), 탈의실(6평), 욕실(9평), 가마(4.5평), 이발소(5평), 화장실(대변남녀 각 1실, 소변2실), 세면장, 화부



일본 센토(東上野 寿湯, 1952년)
출처 : 필자 촬영

실(火夫室; 1.5평), 석탄 창고 등의 공간으로 구성되어있었다. 이러한 평면 구성은 해방 후에도 계속 이어져 동네 목욕탕 평면의 표본처럼 받아들여졌다. 이곳에 비치되었던 가구는 신발장, 평상(簀板), 거울, 걸상, 우산대 등이 있었다.

1939년 6월 6일 동아일보 기사에 '공설 욕장 및 이발소'라는 내용이 등장하고 사진에 등장하는 공설 욕장의 건물 형태가 예사롭지 않다. 이를 놓고 추론컨대 사진 좌측에 가로로 배치된 건물을 이발소로 보는 것이 옳다는 생각이다. 화장실이 대변 남녀 각 1실, 소변 2실로 구성된 것도 이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남녀 대변소 각 1실과 소변 1실은 목욕탕에 부설된 것이고, 소변 1실은 이발소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

건물 전체 면적과 공간별 세부 면적 상의 차이와 부역을 의미하는 조장(溜場)의 기능은 여전히 의문이다.

대형 사우나가 유행하면서 욕탕 중심의 공간 구성이 한증실과 사우나로 바뀌고, 대형 사우나의 규모와 시설에 밀려 동네목욕탕은 점차 자취를 감추고 있다. 일본에서는 사라져가는 센토를 살리기 위해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사이트를 운영하고, 다양한 이벤트를 벌이고 있는 등 동네 목욕탕 부활 프로젝트를 제안한다.



공설 욕장(公設浴場, 1933년). 출처 : 인천부사(필자 소장)
(간판이 달린 우측 건물이 목욕탕이고, 가로로 배치된 좌측 건물은 이발소이다.)

“물기는 말리고 기름은 태워야 한다.”

글·사진·김시연(시인)

“철분이 있어서 밥맛이 고소하다. 요즘은 전원주택 지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 무쇠술 걸어놓고 불 때는 재미가 꽤 괜찮다.” 오정신(74) 씨는 인천시 중구 배다리에 서 57년째 무쇠술을 팔고 있다. 4·19혁명이 나던 해인 18살부터 대고모 할아버지택에서 일을 도와주다가 가게를 맡게 됐다. 가게 안에는 가마솥, 웅술, 물솥, 밥솥, 난로, 화로, 절구, 차 덥는 솥, 아궁이문, 화덕, 고기 굽는 판 등등이 가득하다.

무쇠술은 전라도 광주, 충북 괴산, 경기도 안성 등지에서 가져온다. 올겨울은 솔보다는 난로가 많이 나갔다. 연탄난로는 연탄값이 오르는 바람에 다른 해보다 덜 팔렸다. “요즘 사람들은 연탄 갈고, 연탄재 버리는 걸 싫어한다. 또 마이너스 통장을 써도 스위치만 탁 누르면 금세 데워지는 걸 좋아한다.” 오씨는 난로가 줄어드는 상황이 안타깝다. 난롯가에 주욱 앉아서 이야기도 나누고, 맛있는 것도 해 먹던 시절이 그리기 때문이다. 무쇠술을 쓰는 사람도 찾아보기 힘들다. “예전에는 아들이 장가들면 장롱은 없어도 가마솥, 웅술, 밥솥, 물솥을 사 주었다. 집집이 네 개씩 걸려 있었다. 사랑채에서 쇠죽을 쑀던 가마솥, 적은 식구가 국이나 밥을 해 먹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웅술, 밥해 먹는 밥솥, 물을 데우는 물솥이 꼭 필요했다.”

무쇠술은 사람들의 기억과 추억에만 있다

주거 형태가 달라지면서 무쇠술은 사람들의 기억이나 추억에만 있다. 입식 부엌에서 생활하면서, 보일러를 놓는 사람들이 생기면서 나무 땔 일도 없어졌다. 오씨는 사람들이 조금만 생각을 바꾸면 다시 무쇠술을 쓸 수 있다고 말한다. “무쇠술은 길만 들이면 된다. 물을 담아 놓으면 녹이 나니까, 물이 있으면 말려야 한다. 기름기 있는 음식을 쓰면 불로 태우면 된다. 예를 들어 통닭을 해 먹으면 내용물은 먹고 불로 싹 태우면 된다. 설거지 할 것도 없고, 길도 잘 든다.” 무쇠술으로 밥을 지어먹어 본 사람은 친구를 데리고 온다.

주물공장도 사라졌다. 예전에는 만하주물, 동구주물, 영신주물이 근처에 있었다. 제물포역 근처에는 주물공장이 두 군데나 있었다. 그러나 동네에서 연기를 내고 시커먼 쇠를 실은 차들이 왔다갔다하니까 시에서 주물공장을 번두리로 옮기라고 했다. 이런저런 우여곡절 속에 인천에서는 주물공장을 찾아보기 힘들게 됐다. “야끼 기술자”가 없다. ‘야끼’는 기계 주물이 아니라 힘들여 ‘담금질’하는 것이다. 일할 사람이 없어 만들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술 있는 영감님들이 정말 잘 만든다. 우리나라에서는 전기로 쇠를 녹이고, 중국에서는



재래식으로 쇠를 녹인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게 좋다. 전기로 하면 빨리 녹일 수 있고, 높은 온도로 맞추니까 강도가 세진다. 반면에 용광로에 내화 벽돌을 쌓고 재래식으로 하면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

항아리처럼 무쇠솥도 숨을 쉰다

무쇠솥이 왜 좋을까. “솥이 두꺼워서 불을 천천히 빨아들인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양은솥과 무쇠솥에 같은 양의 물을 넣고 끓이면 무쇠솥이 더 빨리 끓는다. 무쇠솥이 더 빨리 뜨거워지기 때문이다. 무쇠솥을 깨뜨려서 현미경으로 보면 스펀지가 엉겨있는 것 같다. 그래서 금방 나온 솥에 기름을 잔뜩 붓고 하룻밤을 두면 기름이 스며들어 바닥이 흥건해진다. 쓰면 쓸수록 스펀지 구멍이 메워진다. 음식 남은 걸 무쇠솥에 넣고 뚜껑을 덮으면 음식이 잘 안 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 말은 솥이 항아리처럼 통하고 있다는 거다. 무쇠솥을 닦을 때는 합성세제를 절대로 쓰면 안 된다. 돼지기름으로 빙 두르면서 기름을 태우고 물은 말려야 한다. 합성세제를 쓰면 합성세제가 솥 표면에 스며들었다가 다시 나오게 된다. 물기는 말리고 기름은 태워야 한다.”

무쇠솥이 아주 잘 팔릴 때는 배다리에 사람이 넘쳐

났다. 통행금지 때 말고는 사람 발길이 끊어지지 않았다. 사람 구경하려고 나온 사람도 많았다. “오죽하면 내가 친구와 자전거 타기 시합을 했겠는가. 중앙시장 통을 자전거 타고 가면서 한 번도 내리지 않는 걸 시합했다. 하지만 사람이 워낙 많으니까 자전거를 달리다 내리지 않고 갈 수가 없었다. 참, 쓰리꾼이 버글댔다. 시골에서 농사짓다가 온 사람이 혼이 빠졌다. 쓰리꾼이 그런 사람한테 붙었다.” “리어카꾼들이 쭈욱 있어서 사람들이 ‘리어카!’ 하고 불렀다. 하인천역 가자, 수인역 가자, 만석부두 가자고 했다. 단골이 많은 사람은 금방 다녀와서 또 나가면 서로 싸우기도 하고… 다 얼마 안 된 것 같은데 참 오래됐네. 하하.”

인천과 부산 목욕탕 굴뚝

글 · 정경수(자원봉사자)



동네의 랜드마크였던 목욕탕 굴뚝

어린 시절을 부산에서 보낸 나는 목욕탕 굴뚝에 관한 남다른 기억이 있다. 1984년 6살 때 일이다. 길을 건너다 마주오던 오토바이에 치이는 사고로 나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었다. 바로 옆 버스정류장에 있던 사람들은 울고 있는 내게 뛰어와 다친 곳은 없는지 여기 저기 살핀 후 “얘야, 너 집이 어디야?”라고 다급하게 물었다. 나는 눈물을 흘리면서도 한 손으로는 수많은 주택들의 지붕 사이로 우뚝 선 금수탕 굴뚝을 가리켰고 그 곳으로 안내를 받아 목욕탕 아주머니의 도움으로 집으로 돌아갔던 기억이 선명하다. 부산은 유독 목욕탕의 굴뚝이 잘 보였고 그 갯수도 무척 많았다. 우리 집이 어딘지 설명할 때 ‘금수탕 옆 2번째 골목 파란 대문집이에요’라고 말할 정도였다. 동네 어디서나 쉽게 찾을 수 있는 굴뚝은 동네 위치를 알릴 때 목욕탕 이름을 대곤 했을 정도였다. 이처럼 여기저기 솟아 있는 파란색 기둥에 ㄹ 모양의 그림과 함께 ‘OO탕’이라고

쓰여 있는 부산의 목욕탕 굴뚝들은 높은 건물 이 거의 없던 시절 동네의 간판이자 이정표였다. 요즘처럼 길을 안내하는 이정표가 없던 시절이라 타지에서 처음 동네를 방문하던 사람들에게 길을 안내하거나 친구들끼리 약속 장소를 잡을 때도 언제나 목욕탕이 기준이었고 그 굴뚝은 이정표였다.

이런 나의 기억과는 다르게 인천에서 만난 목욕탕은 매우 낮은 모습으로 마주하게 되었다. ‘타박타박 인천’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처음 알게 된 ‘처녀목욕탕’이 그것이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굴뚝과 하얀 글씨로 쓰여진 목욕탕의 이름으로 이곳에는 당연히 남탕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게다가 처음에는 굴뚝 모양만으로 이곳이 목욕탕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다. 일주일여 몇 번은 지나는 길이었는데 목욕탕이라고 생각을 하지 못한 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굴뚝과는 크기와 모양이 너무 달라서였기 때문이었다.

굴뚝 모양이 다르다

부산 목욕탕 굴뚝은 전부 원기둥 형태로 되어 있다. 굴뚝의 길어도 수십 미터에 달한다. 지금까지도 부산의 길에서 가장 잘 보이는 구조물 중 하나로 손꼽히는데 이렇게 높게 지어진 가장 큰 이유는 부산 지역의 지형 때문일 것이다. 7~80년대 목욕탕들은 물을 데우기 위해 벙커C유를 사용하는데 이 연료는 연소되면서 많은 연기를 배출한다. 부산은 산과 언덕을 깎아 집을 짓고 도로를 만든 곳이 대부분이라 굴뚝이 낮으면 연기는 전부 뒷집으로 유입되기 때문에 아주 높게 지어 연기를 하늘로 날려 보내기 위함이었다. 굴뚝이 하늘 위로 높아지는 만큼 제작하는 방법도 스케일이 남달랐다. 요즘 고층빌딩을 지을 때 쓰는 거대한 크레인이 동원되어 2~3미터 정도의 콘크리트 기둥을 하나씩 쌓아 올려 만드는데 수많은 장비가 동원되어야 하니 그 비용도 만만치 않았을 것이다. 그래서인지 부산의 목욕탕 주인은 대부분 소문난 부자였다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 부산은 동네마다 높이는 조금씩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인 형태는 모두 비슷하다. 원기둥을 3등분하여 위와 아래가 파란색으로 칠이 되어 있고 중간은 백색 바탕에 검은색 글씨로 목욕탕 이름이 쓰여져 있는데 멀리서도 이름을 확실하게 알아 볼 수 있다.

반면에 인천 목욕탕 굴뚝은 사각기둥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 마치 크리스마스 만화에 나오는 산타클로스가 선물 보따리를 매고 들어가던 그 굴뚝의 모습처럼 보인다. 거대한 부산의 굴뚝과는 다르게 옥상으로 부터 길이는 약 3~4미터 남짓 되어 보인다. 사람이 직접 올라가서 벽돌로 쌓아야 했기 때문에 높이가 그다지 높지 않다. 게다가 인천의 지대가 부산에 비해 평지가 많아 부산의 굴뚝처럼 높게 쌓을 필요가 없었을 것이다. 이러한 굴뚝은 붉은색 벽돌을 사용하였는데 이 적벽돌은 습기에 강하고 내화도가 좋아 쉽게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많이 쓰여진 것으로 보인다. 목욕탕의 이름들은 벽돌의 바탕 위에 가장 잘 보이는

색인 백색으로 쓰여져 있다. 부산 지역의 굴뚝은 마치 공장과 비슷하여 이름이나 탕 모양이 없으면 목욕탕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지만 인천의 목욕탕은 붉은색 벽돌과 나지막한 모습이 목욕탕 온수의 따뜻함과 정감이 있는 모양의 굴뚝이다.

점점 사라져 가는 굴뚝

젊은 시절 인천에서 처음 마주하게 된 처녀목욕탕은 기억 속에 있었던 어린 시절의 추억을 떠오르게 해 주었다. 그러나 지금은 이곳이 영업을 하지 않는 것처럼 오랜 시간이 지나고 필요성을 상실하게 되면 언젠가는 실제로 볼 수 없게 될 것 같은 마음에 알 수 없는 아쉬움이 남아 있다. 인천과 부산이라는 비슷하면서도 다른 두 지역의 굴뚝 모습으로 시작된 작은 호기심은 내 어릴 적 기억과 함께 지금도 사라져가는 것들에 대한 아쉬움을 남기게 되었다. 아버지 손을 잡고 함께 다녔던 동네 작은 목욕탕을 아직도 기억한다. 지금은 아이들의 아버지가 되었으니 내 아이들에게도 작은 추억을 만들어 줄 동네 목욕탕을 다녀와야겠다.



동네 목욕탕지기

글 • 최정미(자원봉사자)
사진 • 엄경미(자원봉사자)



남경택씨 부부

간석4동에 위치한 신화탕은 22년간 동네 목욕탕으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업주인 남경택 씨(62세)는 인천 부평에서 태어나 초·중·고를 다닌 인천 토박이다.

목욕탕업은 어떻게 하게 되었나요

인천수고를 나와 처음에 선박 근무했어요. 선박에서 기관장 생활을 20년 하고요 결혼 후 마땅히 할 게 없더라고요. 배운 게 배에서 엔진이어 했으니까 이것도 기계의 일이고 같은 엔지니어를 파트라서 목욕탕을 하게 됐어요. 처음에 서울에서 잠깐 하다가 고향인 인천으로 가자고 결심한 후 이 자리에 서는 22년째 영업을 하고 있죠.

27년 목욕탕을 운영해 오면서 전성기도 있었지만 십여 년 전부터 불가마가 성행하면서 좋은 시설을 따라갈 수 없으니 동네탕이 죽다시피 했지요. 이젠 사양산업이 되어 은 행대출도 중지되고 운영하기 힘들고 모든 인건비를 자체적으로 꾸려 나가다보니까 여 기까지 오게 되었다.

어떤 계기로 3000원 쿠폰을 발행하여 요금을 받게 되었나요

2014년 4월부터 3000원 받기 시작했어요. 얼마 전부터 공과금 내기도 빠듯해서 3500원으로 올려 받았요.

그 때만 해도 협정 요금(나라에서 정해 주는 요금)이었는데 지금은 불가마가 많이 생겨서 협정 요금이 무너지고 자율화가 됐어요. 3000원 계기가 되고 본인이 원하는 대로 받을 수 있게 됐죠.

불가마가 생기기 전에는 동네탕이 많이 유지되고 있었는데 동네 시설이 불가마 시설을 따라갈 수 없어요.

물 받고 사우나 돌아가고 손님이 있건 없건 간에 경비는 들어가니 많이만 와 주면 3500원 받아도 유지가 될 수 있어 박리다매라 할 수 있죠.

손님들의 반응은 어떠했나요

3000원 쿠폰을 발행하면서 손님이 조금 나아지긴 했지만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은

아니지만 조금씩 나아졌다.

지금은 동네 분들이 경제가 어려운데 싸게 받아 오시는 분들이 고마워하시죠. 고객 분들은 열추 50대 이상인 분들이죠.

경제가 그동안 많이 어려웠고 정상적인 요금 받으니까 손님들이 요금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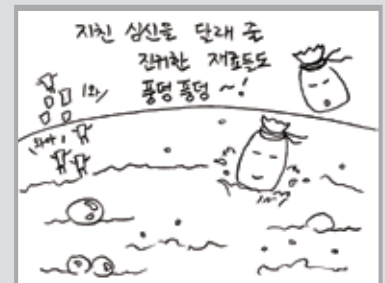
손님들의 주 연령대는

젊은 분들은 시설 좋은 데로 가고 저희는 말 그대로 동네탕 개념이죠.

여기 오시는 분들이 최근에 새로 온 분도 계시지만 10년 이상 단골손님이 많아요. 60~70대 개중에는 90대도 오세요. 두세정 거장 거리에서 오시고 아주 멀리서는 오지 않으세요. 20년 됐으니까 40대 고객이 60대가 되어서 손주 데리고 목욕 오시는 분도 많아요.

연말선물 - 월미도 조탕 엽서

조유미(전시교육부)



신화탕만의 자랑거리는

사실 볼 건 없는데 청결하게 하고 서비스 좋고 저렴하다고 저희 집에 오시죠. 수건도 저희들이 직접 세탁해요. 여기 오시는 손님들은 10년에서 15년 단골 분들이죠. 찾아오시는 손님이 고맙죠. 요금이 싸도 내가 싫으면 안 올수 있는데, 단골로 오시는 분들은 경조사도 챙기며 거의 가족처럼 알고 지내죠. “김장철이 되면 파티가 열려요.”

서로 인사하고 안 오면 왜 안 왔냐 무슨 일 있냐 미용실 다방 같아요. 병원에 입원하면 문병 가고 경조사 다 챙기고 왜 안 왔냐 궁금해 해요. 김장하면 싸 가지고 와서 파티가 열리죠. 동네 사랑방 같은 곳이에요.

언제까지 목욕탕 운영을 계획하고 있나요

지금 계획으로 70세까지 할 생각이구요. 저희 일이잖아요. 집에 있으면 무료해지고 나와서 일할 수 있다는 게 감사하고 즐겁죠. 손님들에게 최대한 서비스 해 드리며 운영해야죠.

언제부터인가 좀더 좋은 시설 좀더 쾌적한 곳을 쫓다보니 동네 목욕탕의 존재가 희미해졌다. 늘 거기 있을 줄 알았는데 무관심했던 시간만큼이나 동네탕은 줄어들고 있다.

이번 주말에는 가족과 같이 동네 목욕탕으로 가 보자구요.



인천의 문화지도 청학동 외국인 묘지

「이국의 땅에서 죽음을 맞다」

글 • 구자인혜(자원봉사자)

송도 삼거리에서 차를 우회전했다. 재래시장을 끼고 있어 오가는 사람들로 늘 붐비는 곳이었다. 창밖은 뚝 떨어진 수은주에 비해 따뜻한 봄날을 연상시켰다. 자동차 안에서 밖을 바라본 시선 때문이었을 것이다. 3~4분을 그대로 직진을 하다 처음으로 나타난 오른쪽 골목으로 차를 꺾었다. 멀리로 울창한 소나무 숲이 보였다. 자동차를 골목 입구에 세워놓고 걷기로 했다. 발걸음을 옮기니 청량하고 푸른 기운이 코끝과 귀밑을 감돈다. 비류와 백제의 미추왕 묘

를 칭하는 '청릉'과 문학산의 '학'을 따서 만들어진 지명과도 연관되지 않았다. 차가운 바람을 가르며 낮은 구릉을 올랐다. 외국인 묘지라는 초록색의 간판 뒤로 돌계단이 이어졌다. 관리가 덜 된 탓인가 고르지 않은 계단을 밟고 묘지 정문으로 올랐다. 굳게 잠긴 철문 사이로 보이는 외국인 묘지는 이전 준비 중이었다. 소나무 사이로 놓인 비석들은 종이처럼 얇고 흰 스킨폴로 여러 겹 포장되어 붉은 흙 위로 넓혀져 있었다. 그 사이 군데군데 인골을 파낸 구덩

이가 패인 채로 황량한 거울을 맞고 있었다.

1883년 인천항이 열리면서 인천은 무역항으로 성장했다. 외국인들은 전보다 더 빈번하게 이곳을 찾으며 체류했다. 이들이 조선을 찾는 목적은 일본, 청나라, 러시아와 같이 침략의 욕망을 노골적으로 드러내지는 않지만 내심 그와 비슷한 마음이었을 터였다. 그들은 대부분 무역이라는 커다란 목적을 가지고 바다를 건넜다. 한편으로는 기독교의 전파란 순수한 목표로 낯선 이국땅을 찾은 사람들도 있었다. 경성과 강화도의 그늘에 가려 늘 뒷전이었던 인천은 그들을 만나 오랜 잠에서 깨어나 비로소 기지개를 폈다.

1883년부터 1914년까지 인천에는 외국인의 특정 거주 지역인 지계가 책정되었다. 그들은 지계 안에서 자국의 법으로 보호를 받으며 치외법권의 특권을 갖고 생활했다. 조선의 서민들은 그들에게 밀려 차츰 산동네로 생활터전을 옮겼다. 인천시립박물관에는 조계석이 전시되어 있다. 조출보다는 조약이라는 표현이 더 적합할 듯한 지계석은 당시 조선의 국력과 백성들의 삶을 짐작할 수 있다.



사진 김명순(자원봉사자)



사진 인천문화재단

조선을 찾은 외국인들은 외교관, 통역관, 선교사, 무역가, 선원, 의사 등 여러 층의 인사들이었다. 이들은 조선에 학교, 병원, 무역상사 등을 세우고 자신들의 목표를 이루려고 했다. 하지만 삶과 죽음의 경계는 늘 예고없이 찾아오기 마련이어서 이들에게도 죽음이 찾아왔다. 처음에는 이들의 주검은 바다가 바라보이는 북성동 언덕에 묻혔다. 그러다가 주검들의 수요가 늘어나며 외곽인 울목동과 도화동의 야산 등지에 공동묘지를 설정했다. 각국지계의 묘지는 외국인 묘지로, 일인묘지, 의장지(義莊地·청인묘지)로 칭해졌다. 외국인 묘지는 1965년 5월 25일 지역개발에 따라 청학동 현재의 장소로 이장을 하였다.

이장을 준비하고 있는 주검은 미국인 묘 17기와 독일인 묘 11기, 영국인 묘 9기, 러시아인 묘 5기, 이탈리아인 묘 3기, 오스트레일리아인, 네덜란드인 묘 각 2기, 프랑스인, 캐나다인, 스페인인, 폴란드인, 체코인, 중국인 묘 각 1기와 국적 불명의 11기 등 모두 66기였다.

이들 중에는 1891년 인천 최초의 서양식 의료기관 ‘성누가병원’을 설립한 미국 출신의 엘

리바 랜디스(Eli Barr Landis) 박사도 있다. 이 분은 병원을 운영하면서도 늘 조선 백성들의 눈높이로 주변을 살폈다. 병원에도 ‘낙선시의원(樂善施醫院·선행으로 즐거운 병원)’이라는 간판을 달아 조선인들이 친근감을 갖고 병원을 찾을 수 있도록 배려했다고 한다.

우리탕(吳禮堂·1843~1912)은 중국인으로 유일하게 외국인 묘지에 묻혔다. 그는 청나라 외교관 출신으로 인천해관에서 통역을 했다. 그가 송학동에 지은 독일식 별장 ‘오례당’은 아름다운 근대건축물 중의 하나로 인천 개항장에서 가장 눈에 띄었다고 한다. 우리탕은 20세 연하의 아내와 함께 조선에 왔다. 스페인 사람이었던 그녀 역시 오리탕과 나란히 묻혀 서로의 외로움을 달래고 있다.

개항기에 해외 무역을 주도했던 독일계 무역회사 세창양행의 간부 헤르만 행켈(Hermann Henkel), 타운센드 상회를 운영했던 미국인 월터 다운센드(Walter Davis Townsend) 등도 청학동 외국인 묘지에 잠들어 있다. 오페라 ‘나비부인’의 실제 주인공의 딸인 베넷 하나 글러보(Bennett Hana Glover)도 이곳에 묻혀 있다. 그

녀는 이곳을 찾는 이들을 청학동 소나무 숲에서 일본의 나가사키로 이어주며 이탈리아의 오페라 무대로까지 상상력을 이끌곤 했다.

이 외의 많은 묘지에서 다양한 매장 문화를 접하며 각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상당수의 묘지는 요즘도 대사관이나 관련 국가의 대표 인사들의 참배가 이어지고 있다. 수구초심(首丘初心).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가 살던 곳으로 머리를 둔다고 한다. 하물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며 긴 세월 타지에서 살다 묻힌 분들의 심정은 어떠할까. 지역 발달에 따른 변화를 따라 묘가 옮겨져도, 땅속에서라도 자신을 고향과 이어주는 파도소리 가까운 곳에 묻히고 싶지 않을까. 새로 이전하는 인천가족공원에서나마 부디 각국의 묘지 원형을 그대로 보존시켜 이국의 땅에 묻힌 이분들의 넋을 조금이나마 위로해 드렸으면 하는 바람이다.

박물관 소식 전시 / 교육 / 행사

시립박물관

기획특별전 동아시아우호박물관 교류 전시

전시명 키모노가 말해 주는 일본의 마음(가제)

내용 키타큐슈자연사역사박물관 소장 키모노와 지역 특산품 코쿠라오리 등 소개

일시 2017. 2. 14.(화)~3. 19.(일)

장소 시립박물관 2층 기획전시실



특별전 연계 체험

키모노가 말해 주는 일본의 마음(가제)

주제 일본 직물 짜기 체험

일시 2017. 2. 25.(토) / 26.(일)

대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장소 시립박물관 3층 해넘이방

신청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수강 신청(선착순 마감)

참가 비용 무료

우리 가족 박물관 가는 날

주제 옛날 목가구 속 멋과 지혜

일시 2016. 12. 10.(토) / 17.(토), 10~13시

대상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장소 시립박물관 3층 해넘이방

신청 시립박물관 홈페이지 수강 신청(선착순 마감)

참가 비용 무료

가재 박물관으로



주제 전시 및 교과 연계 체험 학습

내용

대 상	교육명	교육내용
1학년	옛날 옛적, 인천이야기	비류 설화 애니메이션 감상 후 나만의 두루미 만들기
2학년	영차, 영채 집을 짓자	우리나라 최초의 철도인 경인철도를 주제로 한 연극놀이 체험
3학년	박물관의 보물을 부탁해	박물관의 보물을 찾고 OX퀴즈를 통해 보물 획득
4학년	출동! 박물관 미션왕	다섯 가지 미션과 스피드 퀴즈를 통해 미션왕 선발
5학년	박물관 탐험대	박물관 탐험 후 보드게임을 통해 명예 탐험대 등극
6학년	박물관의 특종을 잡아라	박물관 신문 기자가 되어 인천 역사의 특종 취재

일시 학기 중 화~금요일, 10~12시

장소 시립박물관 해넘이방, 상설전시실

대상 초등학교 한 학급(25명 내외)

신청 인터넷 접수 후 추첨 방식
(일정 확정 후 팩스 접수)

문의 032-440-6739

청소년 교육 상상놀이터



주제 영화 속 한국사 탐구

내용 영화 속 역사적 사건 탐구 후, 관련 연극 및 영상 제작

일시 2017. 1. 7.(토)~1. 21.(토)
매주 토요일 14~18시

장소 시립박물관 해넘이방, 상설전시실

대상 중학교 3학년 청소년 30명

신청 2016. 12. 9.(금)~12. 31.(토)
유선·이메일 접수

문의 ☎ 032-440-6739

한국이민사박물관

재외동포사진전 수상작 대어 전시



내용 2016년 재외동포사진전 수상작 및 파독 간호사 50주년 기념 사진작품 20점 전시

일시 2016. 11. 22.(화)~2017. 1. 29.(일)

장소 한국이민사박물관 제3전시실~제4전시실
연결복도

대상 전 연령

문의 032-440-4707 학예연구사 박용운

송암미술관
진로 체험 교육 꿈을 그리는 미술관


주제 학예연구사 진로 체험 교육
일시 2016년 학기중 상시
장소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전시실
대상 중학교 단체 회당 25명 내외
신청 사전 전화 협의 후 신청서 접수
문의 032-440-6782

어린이 교육 알!송!달!송! 미술관


주제 십이지, 사군자를 바탕으로 한 전시 연계 체험교육
일시 2016년 학기중 상시
장소 송암미술관 강당 및 전시실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단체 회당 25명 내외
신청 사전 전화 협의 후 신청서 접수
문의 ☎ 032-440-6782

검단선사박물관
어린이 교육 발굴 체험 교실 고고학 올림픽


내용 고고학 기초 배우기→발굴 체험→발굴 유물 실측→유물 복원→고고학 퀴즈→시상
주제 발굴 및 유물 복원 과정 등 체험하기
일시 2017. 1. 6(금) / 13(금) / 20일(금)
10~12시 / 14~16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2층 발굴 체험장
대상 초등학교 3~6학년
신청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2016. 12. 20(화)부터
문의 032-440-6797

어린이교육 도전! 역사 퀴즈왕

내용 전시실 관람→역사 퀴즈→시상
주제 선사 시대에서 조선 시대에 이르는 시기의 역사적 사건, 인물 등에 대한 역사 퀴즈 풀기
일시 2017. 1. 24(화)
- 초등부 10~12시 / 14~16시
2017. 2. 2(목)
- 중등부 10~12시 / 14~16시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1층 상설전시실 및 제2전시실
대상 초등학교 5~6학년, 중학교 2~3학년
신청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2016. 12. 20(화)부터
※ 단체접수가능(전화)
문의 032-440-6797

선사 시대 이야기 달력


내용 선사 시대 유물 감상 (전시실 관람과 활동지 작성)→종이공예로 선사 시대 달력 만들기→소감 발표하기
주제 선사시대 유물 모양으로 장식한 달력 만들기
일시 2017. 1. 4(수) / 11(수) / 18(수)
10~12시(6~7세) / 14~16시(초등1~2학년)
장소 검단선사박물관 1층 상설전시실 및 2층 아동도서관
대상 6세~초등학교 2학년
신청 박물관 홈페이지 선착순 접수
2016. 12. 20(화)부터
문의 032-440-6797

컴팩스마트시티
와글와글 박물관


내용 개항 이후 인천의 역사와 문화를 연극놀이 등 체험으로 이해
일시 2017. 1. 11(수) 10~12시 30분(저학년) / 14~16시 30분(고학년)
장소 컴팩스마트시티 4층 교육실
대상 초등 저·고학년생 각 20명
신청 컴팩스마트시티 홈페이지
문의 032-850-6026



월미도 조탕 사진엽서

소장 유물

일제시대, 左14.0x9.2·右14.0x9.0cm

여기 두 장의 엽서가 있다.

먼저 조탕 원경을 담은 사진엽서. 흐드러지게 만발한 벚꽃 아래 월미도 조탕 전경이 아득하게 펼쳐져 있다. 「월미도의 사쿠라(月尾島のさくら)」란 제목과 함께 ‘겨울잠을 깬 월미도의 벚꽃 아래로 꿈같이 보이는 조탕…’이라는 시구가 적혀 있다.

다른 사진엽서 하나. 뽕얇게 김이 서린 조탕의 대욕실(大浴室) 안이다. 물은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게 알맞은 도수로 데워져” 있을 것이다. 띄엄띄엄 앉은 몇몇 입욕자들은 제각각 무언가를 골똘히 생각하고 있다. 누군가는 소설 「박명(薄命)」(1938~1939, 한용운) 속 주인공처럼 목욕 후 ‘라이스카레’를 먹을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고, 다른 누군가는 윤치호(1865~1945)처럼 ‘한적했던 작은 섬을 매혹적인 여름 휴양지로 탈바꿈해 놓은 일본을 비난할 수만은 없을 것’이란 생각에 자기비하와 함께 그래도 여기에 올 수 있는 자신의 처지에 일말의 안도감을 느끼

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아니라면 소설 「주리아」(1933, 이효석)의 주인공처럼 지난 밤 ‘너무나 가까웠던 육체적 거리’ 때문에 난처해진 상황을 빠져나갈 궁리를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다.

신기루처럼 피었다 사라진 식민지 파라다이스 월미도. 1923년 7월 10일 「남만주철도주식회사」가 이곳에 작은 해수욕장과 조탕(潮湯)을 개장한다. 개장 첫날부터 500여 명이 찾아 성황을 이루었고, 여기에 여관, 별장, 간이식당, 매점, 해수욕장, 보트 대여 등의 시설도 갖추어져 있었기 때문에 월미도 유원지는 당시 유명했던 원산의 송도원과 부산 해운대를 제치고 일약 최고의 명소가 되었다. 1924년 「월미도유원주식회사」가 조탕을 인수한 후 본격적으로 영리 목적의 시설물을 확충하면서, 월미도는 대규모 유원지로 변모해 갔다. 봄이면 벚꽃놀이 인파로, 여름에는 해수욕장에 온

사람들로 들끓었다. 경성(京城) 근교의 유락지였기에 다른 이들의 눈을 피해 묘한 기대를 가지고 이 곳 월미도와 조탕을 찾는 사람들도 있었을 것이다.

근근 20년, 꿈 같은 세월이었다. 일제 패망 이후 신기루를 재연하지는 움직임도 있었지만 파라다이스 월미도는 전쟁의 포연 속에 영원히 사라져 버렸고, ‘꿈 같은’ 조탕 풍경과 조탕 안에서 증기처럼 피워 올렸을 사람들의 환상도 함께 사라져 버렸다. 남아 있는 엽서들이 월미도에 그것들이 실재했음을 증거 하고 있을 뿐이다.

글 • 신은영(전시교육부)

